

'두근두근'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탐진강 일원 및 우드랜드 배경 개최 관광객·군민 축제 주인공 돼 즐기는 놀이축제로 체질 개선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적셔 줄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8일 개막해 7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28°C.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탐진강과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열린다.

장흥군은 물축제 10주년을 맞아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의 면모를 과감히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물축제는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관광객의 효율적인 체험 동선 확보와 탐진강 동서 방향의 프로그램 균형을 맞췄다.

개막식 행사를 없애고 대신 관광객이 중심이 돼 참여하는 지상 최대의 불싸움으로 축제를 시작하는 등 격식을 버린 운영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29일 오후 1시 시작되는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남녀 밴드팀의 가세와 지역 주민 참여 확대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1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간 후 중앙로 일원에는 버닝세라데이 행사가 열려 물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장흥읍 시가지까지 끌어온다.

군은 중앙로까지 축제 무대를 확장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지상 최대의 불싸움은 동화농민협회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동화리데이 행사가 열려 물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장흥읍 시가지까지 끌어온다.

지나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워터락 파티는 기존 금·토요일 2회

에서, 일요일까지 3회로 확대하고 유명 DJ로 라인업을 대폭 보강했다.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캠핑장에서는 버스킹과 인문학 토크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밤 도주' 프로그램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탐진강 물속에서는 매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맨손 물고기잡기와 수중 줄다리가 펼쳐진다.

맨손 물고기잡기는 어종을 다양화 하고 개체수도 늘리는 한편,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얼음 포장해 택배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140년 전통의 장흥고싸움을 재현한 전국 수중줄다리는 예년 보다 훨씬 풍성하고 박진감 넘치도록 재구성하는 등 장흥의 역사와 문화의 색채도 더했다.

이 밖에도 워터슬라이드, 대형 수영장, 출발 드림팀, 우든 보트, 수상 자전거, 카누, 팻목타기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관광객과 군민이 주인공이 돼 즐기는 놀이축제로 확실히 체질을 바꿨다"며,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오셔서 올 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버스커들 여수의 밤 '낭만'으로 채운다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내달 4일~6일...국내외 16개 팀 참가

'버스킹의 도시' 여수시에서 국제 버스커들의 무대 '낭만 3일'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종포해양공원을 주무대로 '2017 여수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수는 지난 3년간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으로 버스킹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올해 첫 개최되는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에 담았다.

버스킹 페스티벌은 총 5개의 무대에서 진행된다. 주 무대는 종포해양공원에, 3개의 보조 무대는 공원 해안산책로를 따라 설치된다. 이순신광장에는 특별무대가 생긴다.

참가팀은 국내 8개 팀 25명, 국외 8개 팀 27명 등 총 16개 팀 52명이다. 버스커들은 3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주 무대와 보조 무대, 특별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특히 둘째 날인 5일은 주 무대

에서 SBS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이날은 율리안세션, 신현희와 김투트, 데이브레이크 등 국내 실력과 가수 10팀과 해외 버스커들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페스티벌 기간 이순신광장에서는 각종 예술품을 전시·판매하는 '로맨틱 아트마켓'과 세계맥주를 즐길 수 있는 '낭만비어'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넓은 피아노를 이름답게 꾸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로맨틱 피아노',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로맨틱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름다운 여수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여수는 버스킹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국제적인 버스킹 도시로 발돋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 블루베리, 말레이시아 이어 홍콩 수출길 올라

지속 수출 본격화...레드향과 함께 대표작목 기틀 마련



장흥군에서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장흥 블루베리의 해외 수출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로 첫 수출된 장흥산 블루베리가 현지 수입상 및 유통업체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

받음에 따라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러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 수출물량은 50kg으로 홍콩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촉할 계획이며, 현지 반응을 살핀 후

구체적인 주문물량에 따라 동남아시아 전체로 지속적인 블루베리 수출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장흥산 블루베리가 지속적으로 수출된다면 국내 물량을 해외로 보낼 수 있어 국내 공급안정은 물론 가격과 농가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블루베리에 앞으로 3년간 10억 원을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레드향과 함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블루베리 가공공장 시설이 완공되면 3종이상의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 할 계획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김신우 원에 연구담당은 "장흥 블루베리가 세계 곳곳으로 수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진도군, 숲속의 전남만들기 참여숲 내달 4일까지 공모

진도군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 공모를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8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 지역은 국·공유지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주민 소모임과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농공단지 버스터미널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

무안군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26일 국민의당과 양일에 걸쳐 각각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도비 확보 및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했고 26일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의원과 지역 임원들이 참석해 군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등 당정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무안군은 노을길 조성사업과 무안생태갯벌 유원

지 조성사업, 승달산 만남의길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복직 배수갑문 개·보수사업 등 9건에 대한 88억원의 국비투자 사업과 10건의 정책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소통, 정보공유의 지리가 마련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한 안건이 결과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